

#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1. 12

통 일 부

# 목 차

## 1. 2001년도 경제시책 방향

## 2. 부문별 동향

- 1) 재정부문
- 2) 건설부문
- 3) 농림수산업부문
- 4) 광·공업부문
- 5) 수송·통신부문
- 6) 과학기술부문
- 7) 대외경제부문

## 3. 종합평가 및 전망

\* 부록 2001년도 북한 경제 일지

## 1. 2001년도 경제시책 방향

- 북한은 2001년도 당·군·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지난해의 실적 평가와 함께 올해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 2000년은 “전환의 해,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해”로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 2001년은 “21세기 강성대국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2001년도 경제건설의 중심방향으로는 생산 정상화를 위해 현존 경제 토대의 정비를 중심과업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부응하는 “우리 식 경제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였음.
  -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모든 공장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하여야 한다’ 고 강조
- 부문별로 보면
  - 전력·석탄·금속 등 선행부문 우선의 산업정책 불변을 견지하면서
  -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경공업, 농업 등 주민소비생활 관련 부문에 정책적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PC생산, S/W개발, 정보통신망 확충 등 IT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해 북한은 연도중 전원회의, 열성자회의, 일꾼회의 등 총 65회의 다양한 선동집회를 개최하여
-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경제관리체계 개선, 시설개체 등 실리적 경제 체질개선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 2001년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내세운 선행부문에서의 경제정상화 노력과 함께 농업·경공업부문에서의 증산을 독려하였음.

**< 2001년도 경제건설관련 행사 개최 현황 >**

시 기	내 용
1. 13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1. 13 민주조선 보도)
1. 15	· 청년동맹, 창립 55돐 기념 청년사업부문 연구토론회
1. 21	· 직맹 중앙위, 제43차 전원회의 · 농근맹 중앙위, 제39차 전원회의
1. 22	· 청년동맹 중앙위, 제21차 전원회의 · 여맹 중앙위, 제36차 전원회의
1. 25	· 김정일 종자론, 종자중시에 관한 연구토론회
1. 30	· 농근맹 창립 55돐 기념 농근맹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 1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2. 8	· 김정일 종자론, 종자중시에 관한 학술토론회
2. 10	· 직맹,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사업부문 토론회
2. 12	· 여맹, 김정일 59회 생일 기념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시 기	내 용
2. 14~15	· 2·16경축 중앙연구토론회 및 중앙보고대회
2. 27	· 전국직맹선전일꾼회의
3. 2	· 전국 청소년학생 및 각계층 근로자들, 농업근로자들, 여맹원들, 군인들 봄철나무심기 꺾기모임
3.21~22	· 전국품질관리부문 열성자회의
3. 25	· 전국여맹선전일꾼회의
3. 26	· 전국축산부문 열성자회의
3. 29	· 전국청년전위들, 사회주의붉은기 총진군대회
3. 30	· 전국청년전위들, 충성의 결의 대행진
4. 5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
4. 8	· 전국과수부문 일꾼회의
4. 10	· 직맹,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 농근맹, 태양절 기념 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관한 토론회
4. 12	·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태양절 기념 충성의 맹세모임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4. 14	· 태양절 기념 중앙보고대회 · 각 도·시·군 연합기업소, 태양절 기념 보고대회
4. 20	· 평양방직기계공장, '모범기대창조운동' 발단 40돐 기념 중앙보고회 · '모범기대창조운동' 발단 40돐 기념 공구 및 부속품 전시회
4. 23	· '모범기대창조운동' 발단 40돐 기념 전국 기술혁신경험 토론회
4.23~26	· 제16차 중앙과학기술축전
4. 26	·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
5.2~3	· 제3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5. 3	· 전국직맹초급일꾼 열성자회의
5. 5	· 정보산업시대에 관한 주체 사상이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시 기	내 용
5.14~17	· 전국지질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광물표본 전시회
5. 18	·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발표 10돐 기념 연구토론회
5.18~21	· 김정일 건축예술론 발표 10돐 기념 '5·21건축축전'
6. 6	· 말레이시아 종려기름에 관한 토론회 및 전시회
6. 18	· 직맹·여맹, 김정일 당 중앙위 사업개시 37돐 기념 사업 부문 연구토론회
6. 27	· 닭공장 개건 현대화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전국미장경기 참가자들 충성의 결의모임
7. 17	· 김일성 90돐 생일을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7. 18	· 청년동맹 중앙위, 제22차 전원회의 · 직맹 중앙위, 제44차 전원회의
7. 19	· 평남, 함남, 양강도, 개성시 등, 김일성 90돐 생일을 맞이 하기 위한 군중대회
7. 20	· 평북, 황북, 자강도, 강원도 등, 김일성 90돐 생일을 맞이 하기 위한 군중대회 · 여맹 중앙위, 제37차 전원회의
7. 23	· 황남, 함북, 남포시, 인민보안성, 철도성 등, 김일성 90돐 생일을 맞이하기 위한 군중대회 · 농근맹 중앙위, 제40차 전원회의
7.24~30	· 평남 순천시 등 전국 시·군·공장·기업소들, 김일성 90돐 생일을 맞이하기 위한 군중대회
8. 2	· 김일성 노작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데 대하여' 발표 40돐 및 김정일 노작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10돐 기념 중앙보고회
8.16~29	·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8. 21	· 경제학회 제2차 회의
8. 24	· 내각전원회의 개최

시 기	내 용
8. 28	· 청년절 10돌 즈음 전국 청년 과학기술 전시회
8. 30	· 전국 학생소년궁전 및 회관 과학기술부문 소조원 경연
9. 6	· 전국 학생소년궁전 · 회관 소조원들의 수학 및 컴퓨터 경연
9. 8	· 정권창건 53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9.12~16	· 제2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
9. 17	· 여맹 중앙위, 제38차 전원회의
9.21~10.8	· 제12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9.26~27	· 전국 종이생산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10. 2	· 독일 국경절 즈음 독일 과학기술 도서 전시회
10. 22	· 평양국제 과학기술 도서 전시회
10. 24	· 양식 물고기 요리 기술 경연
10. 25	· 4.15 기술혁신돌격대원 '전국 기술혁신경기' 1단계 총화모임
10.29~30	· 전국 과수부문 기술경험 발표회
10. 30	· 철도 운수부문 열성자회의
11.19~20	· 전국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표회
11.28~12.1	· 복합미생물비료 및 고려약비료 생산 · 이용에 관한 과학 기술 성과 전시회
11. 29	· 황남도 바닷가 양식부문 열성자회의
12. 4	· 전국 집짐승 기르기 경험 발표회
12. 14	· 전국 철길부문 일꾼회의

## 2. 부문별 동향

### 1) 재정부문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4.5)를 통해 2000년도 예산결산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음.
    - 지난해에는 수입이 209억 343만원(95.5억 달러)인데 비해 지출은 209억5,503만원(95.7억 달러)으로 5,160만원(0.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 2001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수입 103.2%, 지출 102.9% 증가한 215억 7,080만원으로 발표되었음.
  - 이와 같은 예산은 원가, 수익성 등 실리적 재정관리, 높은 목표의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 재정수입을 증대시킨다는 데 예산 편성의 주안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예산 증가율은 2000년 3.1% → 2001년 3.2%로 다소 상향 책정
- ※ 동 회의에서 재정상은 보고를 통해 “경제 일꾼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힘쓰며 원가를 따져가면서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
-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은 실리위주의 재정관리를 통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변화적응적 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001년 총예산 및 재정수지 >

구 분	'00년 예산	'00년 집행	'01년 예산	예산 증가율
수 입	204억 532만원 (93.6억달러)	209억 343만원 (95.5억달러)	215억 7,080만원 (97.6억달러)	3.2%
지 출	204억 532만원 (93.6억달러)	209억 5,503만원 (95.7억달러)	215억 7,080만원 (97.6억달러)	2.9%
수 지	-	-5,160만원 (0.2억달러)	-	

※ 대미환율 : '00년 2.19북한원 / ' 01년 2.21북한원

※ 우리 예산규모( '01년) : 740.1억달러(북한의 7.6배)

< 비목별 예산결과 내역 >

구 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집행결과	84억 297만원 (38.4억달러)	80억 482만원 (36.5억달러)	29억9,657만원 (13.7억달러)	15억5,067만원 (7.1억달러)
비 중	40.1%	38.2%	14.3%	7.4%

-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94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의 비목별 예산지출구성비를 발표하였는 바
  - 동 예산 지출 구성비 분석결과 금년부터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결산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어있던 '추가적시책비'를 '인민적시책비'로 변경 계상함으로써 예산 편성 구조가 변화되었음.

- 세부 비목 변경에 따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졌는 바
  - 종래 인민경제비는 60% 이상에서 40.1%로 감소한 반면 인민적시책비는 19% 수준에서 38.2%로 2배 이상 증가하고
  - 관리비도 종래 1~2% 수준에서 7.4%로 대폭 증가한 점이 주목됨.
- 인민적시책비의 증가는 2001년도에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중점과제로 내세운 데 따라 새로운 결산방법을 도입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됨.
- 관리비의 증가는 정상적 관리비 지출보다 내각 등 중앙기관 및 비생산부문 기관들의 실리추구 정책관련 '사업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지난해 인민경제비 지출은 '94년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인민적시책비는 '94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 비목별 예산 지출항목 추정 >

(단위 : 억원, %)

구 분	1994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2001년	구성비
세출총액	414.4	100.0	209.6	100.0	215.7	100.0
인민경제비	281.0	67.8	84.0	40.1	86.3	40.0
인민적시책비	78.7	19.0	80.1	38.2	82.1	38.1
군사비	48.1	11.6	30.0	14.3	31.3	14.5
관리비	6.6	1.6	15.5	7.4	16.0	7.4

\* 2001년도에 북한은 「인민경제비」를 전년비 2.7% 증가, 「인민적시책비」를 전년비 2.5% 증가한 것으로 발표

\* '94년도에는 「인민적시책비」 대신 「사회문화시책비」 비목으로 지출

○ 또한 북한은 중앙기관들의 기능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수납 체계를 종래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변경하였음 (북한 「경제연구」 2000. 제4호)

○ 부문별 예산수납체계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생산부문의 성·관리국을 예산 수납체계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 점

※ 종전에는 하부 단위 기업소들이 성·관리국으로부터 예산 수납 계획을 받아 개별적으로 예산을 납부하였으나, 새 수납체계에서는 예산수납이 생산관리 지도기관인 해당부문 성·관리국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성·관리국은 자기 부문에서의 예산 수입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성·관리국이 수입예산의 계획단위인 동시에 집행단위)

- 생산부문 성·관리국들이 자체의 자금원천을 조성할 수 있게 된 점

※ 종전에는 기업소들이 성·관리국을 거치지 않고 해당지역 재정기관을 통해 예산 납부하였으나, 새 수납체계에서는 성·관리국들이 자체의 자금 원천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게 됨

- 성·관리국들이 산하 기업소들로부터 수입금을 현물로 수납하게 된 점 등임.

※ 종전에는 성·관리국들이 산하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금을 통계상으로만 종합

○ 이번 새로운 예산수납체계 도입은

- '98. 9 「사회주의헌법」 개정 이후 내각이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며 모든 경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책임지고 풀어나가도록 함에 따라

- 내각의 생산부문 성·관리국들에게 산하 공장·기업소들의 생산 활동을 직접 지도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 98 헌법개정 이후 생산부문 성관리국은 산하 공장기업소들의 생산계획·생산조직·기술지도·자재보장 등의 생산활동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

- 이에 수반되는 예산수입·지출관련 재정관리 사업을 성·관리국이 자체의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각에 예산 수납·집행 권한을 부여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은, 새 예산수납체계 도입으로

- 예산수입면에 있어서는 재정성이 성·관리국을 통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산수입 원천에 맞게 화폐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새로운 예산수납체계 도입으로 성·관리국은 산하 기업소들에서 조성되는 화폐자원을 정확히 장악

- 예산지출면에 있어서도 재정성에서 직접 틀어쥐고 지출해야 할 자금 몫과 매개 성·관리국에서 책임지고 지출할 자금 몫을 명확히 구분하여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등

※ 새로운 예산수납체계 하에서는 예산자금의 동원과정에서 개별적 예산단위들이 중앙집중적 화폐자금의 일정 몫의 보류가 가능

- 성·관리국으로부터 하부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기업소들의 예산수납 활동에 대해 중앙의 지도·통제력(특히 재정통제)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 2) 건설부문

○ 연도중 북한의 건설실적은 91건으로 건수면에서 지난해 (77건) 보다 활발하였음.

- 규모면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전년과 대동소이함.

※ 2001년 예산 가운데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황해남도 토지정리, 평양시의 5개 닭공장 현대화 공사 등을 위한 기본건설자금은 34억 8,706만원으로 전체 예산 215억 7,080만원의 16.2%

○ 시기별로 보면

- 상반기 완공·조업실적은 29건, 하반기 실적은 62건으로 「김일성 탄생 90돌을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7.17)」를 개최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음.

### <분기별 주요경제건설 실적>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1건	10건	19건	32건	30건

○ 대상별로 보면

- 전력, 먹는문제 및 주거문제와 정치선전물과 관련된 건설에 주력하였는 바,

- 이는 당면과제인 전력난의 완화와 2002년도 김일성·김정일 생일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부문별 주요경제건설실적>

구 분	전력	먹는문제	선전물	주거	정보통신	기타	계
건 수	40	15	12	8	3	13	91
비중(%)	43.9	16.5	13.2	8.8	3.3	14.3	100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보고에서 언급된 주요 건설사업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는 기간 중 300여개의 기초 구조물을 완공, 공사를 마무리 단계로 진척시켰고

※ 동 공사는 '99. 11월 「OPEC」의 자금지원을 받아 착공한 160km의 대규모 수로공사로, 북한은 완공될 경우 대동강물이 평남도, 평양시 등 15개 시·군 9만9천정보 농경지에 공급되고, 양수기 사용 절감으로 6만kw의 전기가 절약된다고 선전

- 평양시 5개 닭공장 현대화 공사는 주민들의 「먹는 문제」 완화를 위해 북한이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50개 호동 건설공사를 마쳤으며,

※ 만경대 : 22만8천㎡에 46개 호동 건설, 용성 : 5만8,800㎡에 41개 호동 건설, 서포 : 3만3,100㎡에 닭우리 지붕 개건, 하당·승호 : 닭우리 건축 등

- 황남도 토지정리 사업은 10만정보 정리를 목표로 지난 해 10월 착수하여 연도 중 1단계 5만 정보를 마치고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백두산지구 대노천박물관 공사는 기존 백두산 밀영의 혁명사적지를 정비·확장하는 공사로 '02. 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해 11월에 시작되어 11월 12일 2,100여 세대를 완공하고 2단계 공사가 추진중임.
- 노천박물관에는 살림집 2,600여세대, 시설물 18개, 극장·영화관, 목욕탕, 합숙·관리소, 학교·병원, 텔레비전 중계소 등 총 88개의 공공건물이 건설될 계획임

※ 동 공사와 관련하여 올해 4월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건설예산 최우선 지원'(2001.4.22)의 내각결정을 채택

o 이 밖에 국토관리사업으로

-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기간」 중 약 400km의 도로 개건, 300여정보 새땅찾기, 1.7만정보 산림조성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 9월 들어서는 1,690여km 구간의 도로정비, 경제림조성,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강하천 정비 등을 목표로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을 벌였음.

## <2001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월별	실적
1월	황북도 은파군 은파발전소(1.11) 강원도 고산군 토기와공장 건설(1.11)
2월	평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 조업(2. 13)
3월	황북도 은파군, 은파호 공업용수 이용한 새로운 중소형발전소 건설(3. 4) 황북도 수안군 농민휴양소 건설(3. 7) 황북도 수안군, 중소형발전소 건설(3.12 평방) 임진강에 4월 5일 1호· 2호 중소형발전소 조업(3. 15) 황남도, 3만정보 토지정리 완료 후 2단계 공사 착수(3. 26 조선신보)
4월	고려의학종합병원 개원(4. 13)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애기젓가루공장 조업(4. 13) 6월28일애국공장(타이어재생공장) 조업(4. 20) 동신1호발전소· 형제골발전소· 추포발전소 등 각각 조업(4. 24) 창광원식 목욕탕 '어은원' 개원(4. 25)
5월	평양항공체육선수단 메기종어장(5정보) 건설(5. 6) 평양시 상원군 문포천에 5.7다리· 문포천다리· 풍년다리 준공(5. 9) 평양 전자제품개발회사, 현대식 컴퓨터 생산기지 조업(5. 12) 평양전화국 전국적 컴퓨터통신망 구축(5.22)
6월	함북도 어랑군 어대진제염소 소금생산 개시(6. 10) 강원도 천내군 양어장 건설(6. 11) 강원도 원산시 갈마휴양소 준공(6. 25)

월별	실 적
7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제3터빈발전기 가동(7. 10) 황북도 사리원혁명사적지 답사숙영소 건설(7. 21) 평양버스수리공장 조업(7. 30)
8월	양강도 용암1호 군민(軍民)발전소 완공·조업(8. 7)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8. 14) 황남도 장수산유원지(8. 23) 함북도 나선시 라선국제통신센터 조업(8. 25) 함남도 영광군 영광청년양어장 건설(8. 29)
9월	강원도 원산만제염소 2단계확장공사 완료(9. 3) 평양시 '9월27일 닭공장' 건설(9. 5) 자강도 희천시 부흥잡업전문협동농장 어린누에잠실 완공(9. 11) 자강도 낭림군 제대군인 살림집 500가구 건설(9. 14) 조·중친선양어장 명명(9. 26) 함남도 성천강 27개의 계단식 발전소(총 33개)
10월	황남도 신천군 신천혁명사적관 개관(10.8) 황북도 홀동지구 칠성 1호발전소·옥란발전소·옥란분광산 건설 조업(10.8) 평북도 '125청년광산, 대형컨베이어 및 조광사 준공(10.9) 범안양어장 폐수이용 범안청년발전소 조업(10. 15)

월	실 적
10월	<p>평양시 용성닭공장 등 5개 닭공장 개건 완공(10.18)</p> <p>황북도 수안군 청년발전소·청년염소목장·살림집·휴양소 등 준공(10.18)</p> <p>양강도, 주택 566가구 건설(10. 22)</p> <p>강원도 통천군 양정사업소 메기종어장(120m<sup>2</sup>) 건설(10. 22)</p> <p>함북도 길주군 길주협농 농촌주택 60동 건설(10. 23)</p> <p>평남도 회창군 회창발전소 조업(10.26)</p>
11월	<p>황남도 인산군 원동지역 중소형발전소(50kW) 건설(11. 1)</p> <p>121호종이공장, 펄프생산공정 조성(11. 9)</p> <p>삼지연·이명수·포태·무봉지구 등 백두산 기슭에 주택 2,100세대 건설(11. 12)</p> <p>양강도 대홍단군 감자종자처리장 건설(11. 16)</p> <p>황북도 봉산군 메기공장 건설(11. 16)</p>
12월	<p>황북도 황주군 제대군인주택 120가구 건설(12. 3)</p> <p>개성시 제대군인주택 75동 건설(12. 3)</p> <p>황남도 봉천군 농촌문화주택 60동 건설(12. 9)</p> <p>자강도 고풍 1·2호발전소 완공·조업(12. 11)</p> <p>황남도 은율군 아동공원 건설(12. 27)</p> <p>칠보산유원지 부대시설 완공(12. 28)</p> <p>자강도 송원군 주택 300가구 건설(12. 28)</p> <p>대홍단군 감자가공공장 음료생산공정 완공(12. 30)</p>

### 3) 농 · 립 · 수산업

#### (1) 농업

##### □ 정책방향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라고 강조하면서

- ①종자혁명 ②감자농사혁명 ③두벌농사면적 확대 ④토지정리사업 ⑤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농업기반 확충을 2001년도의 중점과업으로 제시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4.5)에서도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등 중점과업의 관철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년 예산의 인민경제비 가운데 농업부문 사업비를 전년보다 증가시켰음.

※ 올해 예산 중 인민경제비(공업부문사업비, 농업부문사업비, 과학기술발전비 등)는 전년대비 2.7% 증가

○ 특히, 금년에는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음.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은

- 강원도, 평안북도에 이어 세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강원도('98.10~'99.4)에서 3만정보, 평안북도('99.10~2000.5)에서 5만5,000 정보 토지정리사업 실시

- 지난해 10월 10만정보의 토지정리를 목표로 착수되어 올해 봄까지 5만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이와 병행하여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음.

※ 금년 3월부터 1·2단계 사업을 병행 추진해 왔으며, 5. 2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도하였음(중방)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는

- 개천시에서 태성호까지 160km의 '자연흐름물길'을 조성하여 대동강물을 저장하는 대규모 수로 공사로

- '99. 11월 시작된 이래 금년 2월 흙물길의 80%를 형성한데 이어 8월까지 300여개의 기초 구조물을 완공하고 언제(댐)공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는 등 마무리단계 공사가 계속되었음.

※ 이 공사가 완공되면 대동강물이 평남도 일대 9만9천정보 농경지에 공급되고, 양수기 사용이 줄어 6만kw의 전기가 절약된다고 선전

○ 아울러 농업부문에서도 농업의 과학화·현대화의 일환으로 협동농장간 컴퓨터망 구축, 작업관리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였음.

- 안주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일보지령종합프로그램」, 「노력일 관리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협동농장 관리, 결산분배 등을 전산화하였음.

## □ 곡물생산

### ○ 2001년도 기상상황은

- 3월~6월에는 100여일간 강수량이 평년대비 11% 수준인 극심한 봄가뭄이 계속되고

※ 북한은 이번 가뭄으로 전체 농경지의 72%인 133만정보에서 강냉이, 감자 등의 80~90%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6.6, 중방)

※ 북한지역 11개 도의 저수지 저수량이 총저수능력의 42%수준에 불과(5.20 기준, 7.27 FAO/WFP Special report)

- 7~8월에는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10월에는 강원도 원산지역에 해일·폭우 피해가 있었으나

※ 북한은 7-8월 집중폭우로 2만4천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10월 원산지역 폭우·해일로 5만ha의 논에서 추수한 벃단이 유실되었다고 보도하였음(8.3 조선중앙통신, 10.16 큰물피해대책위원회)

- 6월 중순 모내기 이전에 가뭄이 해갈되고 8~9월 중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에 비해 농작물 생육에 유리하였음.

※ 지난해에는 가뭄이 3~7월간 계속되어(평년 강수량의 50~60% 수준) 곡물생산량 대폭 감소(전년대비 15%) 초래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수급상황은 국제사회 지원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졌음.

○ 2001년도 곡물생산량은

- ①쌀의 재배면적 증가 ②6월이후 기상조건 양호 ③농자재 공급 증가 등에 따라 전년(359만톤) 대비 10% 증가한 395만톤으로 추정됨(북한발표는 없었음)
-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수준(156만ha)이나 지난해의 가뭄으로 맥류 등이 대파되었던 농경지가 쌀로 환원되어 쌀의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음.

< 곡종별 생산량 >

구분	쌀	옥수수	서류	두류	기타	계
재배면적(ha)	57.2	54.3	19.4	11.4	15.4	<b>157.7</b>
생산량(만톤)	168	159	44	9	15	<b>395</b>

- 한편, FAO/WFP는 2001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전년(292만톤)대비 38% 증가한 354만톤으로 추정하였음(10.26, 작황평가보고서)
- 그러나, 총수요량(식용, 공업용, 사료용, 기타)이 620여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2002 양곡회계연도에도 자체생산량만으로는 20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됨
- 이 밖에 과일생산에 있어서도 김정일 현지지도와 각종 경제선동집회를 통해 과일증산에 주력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음.
- 북청확대회의 40돌 기념 중앙보고회(4.7)와 전국 과수부문 일꾼회의(4.8)를 개최하여 품종개량, 새로운 재배방법 도입, 과학적 비배관리 등을 증산대책으로 제시하였으며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남도 과일군을 두 차례 현지 지도(5.13, 9.23)하면서 가공공장 현대화, 원활한 수송대책 수립 등 생산된 과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조하였음.

## (2) 축산업

### □ 정책방향

#### ○ 「신년공동사설」에서는

-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튼튼히 꾸릴 것”을 중점과업으로 제시하였음.

####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는

- “새로 건설한 닭공장들을 잘 관리운영하고 기존의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을 정비·개선하여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 집짐승 먹이문제를 풀며 토끼,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운동도 계속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 김정일 위원장은 757부대 염소목장·토끼목장(4.16, 9.11), 「함흥청년염소목장」(5.24), 「9월27일닭공장」(9.5), 「112호닭공장」(11.10), 「평안북도닭공장」(12.14)을 현지지도하면서

- 염소목장 증설, 닭공장 현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식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음.

- 「전국축산부문열성자회의」(3.26)를 개최하여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음.

## □ 염소목장 건설

- 2001년도에 총30개의 염소목장 건설에 착공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의 「함흥청년염소목장」 현지지도(5.24)이후 초지형성에 적합한 지형을 갖춘 함경도, 황해도 등에서 염소목장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 협동농장, 공장·기업소별로 소규모 초지를 조성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염소를 사육하여 자체 副食源을 확보하도록 하는 가운데
  - 1,000정보 이상의 草地와 가공·저장·방역시설, 주택단지 및 편의시설까지 갖춘 종합적 축산전문지구 형태의 대규모 염소목장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 ※ 「함흥시 청년염소목장」은 2000.11.30 완공된 1만 정보 규모의 대규모 목장으로 1,750정보의 풀판과 51개 분장, 젓가공기지 등이 갖추어져 있음.
- 금년 상반기에만 18,000정보의 초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10만 마리의 염소를 더 사육하게 되었다고 선전(8.12, 중방)하였음.
  - ※ 북한은 '96.8 김정일이 ‘풀판조성 및 염소사육 확대’를 지시한 이래 '99년까지 염소는 4배, ‘풀판’(초지)은 수십만정보가 늘어났다고 선전('99.8 노동신문)

## < 2001년도 염소목장 건설현황 >

('01.1월 ~ 12월 북한보도 종합)

일 시	지 역	규 모
5.10	황해남도 강령군	수십정보
5.15	함경남도 함주군	대규모
6.30	함경북도 청진시	7,000정보
7.14	황해북도 봉산군	대규모
7.22	강원도 금화광산	1,000여정보
7.31	함경북도 은덕군	수천정보
8.16	함경북도 김책시	2,500정보
8.31	함경북도 무산군	수천마리 사양능력
8.31	함경북도 회령시	1만마리 사양능력
9. 2	함경북도 화성군	4,000여정보
9.14	개성시 개풍군	1,000여정보
9.15	황해남도 해주시	140정보
10. 2	평안남도 평성시	천수십정보
10. 7	황해북도 평산군	380정보
10. 8	황해북도 신계군	대규모
10.11	황해남도 신원군	수십정보
10.11	황해남도 신천군	수십정보
10.11	황해남도 벽성군	수십정보
10.12	강원도 법동군	대규모
10.12	강원도 세포군	대규모
10.12	강원도 회양군	대규모
10.23	평안북도 철산군	대규모
10.29	자강도 강계시	대규모
11. 1	평양시 강동군	7,000여정보
11. 3	함경남도 북청군	5,800여정보
11.11	자강도 초산군	3만마리 사양능력
11.11	평안남도 평원군	수백마리 사양능력
11.28	자강도 동신군	대규모
12. 2	함경남도 단천시	수천정보
12.11	함경남도 신흥군	대규모

※ 일시: 착공일시 기준

※ 규모: 초지(풀판) 규모기준

## □ 닭공장 개건·현대화

○ 평양시 만경대, 서포, 룡성, 승호, 하당 등 5개 닭공장의 “낡은 설비를 들어내고 새롭게 개조”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금년 1월 동 사업에 착수하여 생산공정 컴퓨터화, 품종 개량, 가공설비개선, 사료기지 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 9월에 각 공장들의 닭우리 개건·확장공사가 완료하고 「청년돌격대」등을 투입하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9.19 평방)

※ 북한은 동 사업이 완료되면 평양시민 한 가구당 한달에 60개의 달걀과 1kg의 닭고기가 공급된다고 보도한 바 있음 (8.31 조선신보)

○ 평양시 역포구역에 현대적 생산·가공설비를 갖춘 「9월 27일닭공장」을 새로 건설하기도 하였음(9. 5 김정일 위원장 현지지도)

○ 이 밖에 축산부분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 2.26~4.13간 북한 축산대표단(단장: 농업성 이성조 부국장)이 국제구호단체인 아메리카후렌즈서비스위원회(AFSC) 후원으로 미국에서 축산연수교육을 받았음.

## (3) 임업

○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토정비를 위해 경제림 조성,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산림조성 및 국토정비와 관련해서는

- 1.31~2.2 「국토환경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를 개최하여 산림조성 및 도로·하천정비, 토지정리사업 등의 추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3~4월)중 학생, 근로자, 군인 등 각계 각층에서 “나무심기 꺾기모임”을 개최하여 1만 7천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고

< 식수절(3.2) 나무심기 실적 >

(단위: 그루)

황북도	평남도	평북도	평양	기 타	총 계
48만	38만	20만3천	2만7,600	140만3천	249만3,600

\* 3.4 중방보도

-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9-10월)에도 ‘빨리 자라고 이용가치가 큰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제림 조성에 주력하였음.

○ 목재생산과 관련해서

- 2월에는 임업성이 통나무,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했다고 보도(3.3 중방)한데 이어
- 3월에는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한 각지 임산사업소에 대거 김정일 위원장의 「감사」를 전달(13개 단위, 3.21 중방) 하였으며

※ **수여대상:** 성간용림사업소, 희천개목생산사업소, 강제임산사업소, 송악풍령작업소, 위원임산사업소, 고인악기용재생산사업소 신계작업소, 랑림임산사업소 련화작업소, 화평임산사업소 소북작업소, 고평임산사업소 용대작업소, 녕원임산사업소 청산작업소, 덕성임산사업소 중돌작업소, 보안임산사업소 문암작업소, 장진임산사업소 갈전작업소, 허천개목생산사업소 상농작업소

- 11월에는 각 도 임산사업소들이 합리적 나무베기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2001년도 연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있다고 선전하였음.

※ **연간계획 완수 임산사업소:** 평안북도 구장·대관, 평안남도 신양, 강원도 천내, 평안북도 수풍, 함경남도 도산·허천·홍원, 자강도 강제, 양강도 풍서·유평 임산사업소(11.6, 11.17 중방)

#### ○ 임업분야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 4월에는 러시아와 「북·러 경제공동위」 임업분과 제4차회의를 개최하여 하바로프스크·아무르 지역으로의 북한 벌목노동력 송출문제, 목재생산 및 분배문제 등을 협의하고 의정서를 체결(4.27)하였으며

※ 「북-러 임업분과회의」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92.9 재개, '96-'00간 3차례 회의 개최)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8개 상설 소위원회(임업, 석탄, 교통, 극동, 과학기술, 경공업, 무역, 금융·채무) 중 하나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벌목사업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임.

- 8월에는 싱가포르 Maxgro Holdings사와 북한지역에서의 조림사업 합작투자 합의를 체결(8.28)하여 평양 근교 국유지에 2만ha 오동나무림을 조성(8백만 그루 규모)하고 여기서 재배된 원목을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맥스그로사」가 2천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북한의 무역성이 설립하는 북한측 회사가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

#### (4) 수산업

##### □ 정책방향

###### ○ 「신년공동사설」에서는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더 많이 기를 것”을 2001년도 중점과업으로 제시하였음.

######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는

- “현대적인 메기공장들을 빨리 완공하고 도처에 양어장을 건설하여 물고기 생산을 늘이는 한편 가까운 바다물고기 잡이와 바다양식을 활발히 벌일 것”을 강조하였음.

##### □ 양어사업

###### ○ 금년에도 각지의 연못, 하천, 온천 등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양어장 증설에 주력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이 양어사업 활성화를 지시한 '97년이래 지난 4년간 각 도별로 300~1000여개의 양어장이 새로 건설되어 양어장 개수는 3.1배, 양어면적은 3배 늘어났다고 선전(9.18, 중방)하였으며

※ 황해남도 600개, 함경남도·평안남도 각 300개, 평안북도 1000개

- 각지에 중소규모 양어장을 증설하는 가운데 함경남도 「영광 청년양어장」, 「동평양메기공장」 등 대규모 양어시설을 건설하였음.

※ 북한은 「영광청년양어장」은 연간 수백톤의 물고기를 생산(30정보, 82개 양어못)할 수 있으며 「동평양메기공장」은 연간 수천톤의 메기를 생산(4만평방미터, 134개 양어못)할 수 있다고 보도(8.12, 9.8 중방)

- 양어장 증설외에도 품종개량, 경제어종 및 선진 양어법 보급, 사료설비 개선 등 양어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빨리 자라면서 먹이를 적게 먹는' 경제어종 보급을 위해 자라 양식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천리마」 5월호)하였으며
  - 「평양승강기공장」에서는 메기사료가공설비를 최초로 제작·완성하여 대형 메기공장에 사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8.11, 중방)
  - 「원산수산대학」에서는 인공수정에 의한 뱀장어번식법 및 첨단정보설비를 이용한 관리방법을 개발하였으며(8.27, 중방)
  - 「전국양어부문과학기술발표회」(10.30-11.1)를 개최하여 그간 양어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발표·토의하였음.
- 해양월간(7~8월)에는 다양한 바다물고기 양어방법을 소개하는 등 바다양어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음.
  - ①인공못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농어, 섭조개 등 바다물고기를 기르는 방법 ②바다 가운데 그물, 전기마당 등으로 차단벽을 설치하여 새우, 도미를 양어하는 방법 ③배 안에 있는 연못에 바닷물을 퍼 넣고 전복을 기르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8.12 노동신문)
  - 현재 북한의 바다양식장 면적은 총5천정보이며 앞으로 2만4천473정보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였음(「조국」 8월호)

## □ 소금생산

- 북한은 만성적인 소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제염소 개건·확장·증설을 추진하였음.
  - 지난해 3월 착공한 「어대진제염소」(함경북도 어랑군)의 600정보 규모 염전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6월부터 소금생산을 시작하였으며
  - 8월부터 원산만제염소(구 천내군 제염소) 2단계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200정보의 새로운 소금밭을 조성하였음.
- ※ 북한의 그동안 소금생산은 서해안의 13개, 동해안의 3개 등 총 16개의 제염소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기술 부족으로 수요량의 1/2수준인 약70여만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에 각지 제염소가 높은 생산성과를 거둬 화학공업성 소금연합회사의 소금생산계획이 119.1% 넘쳐 수행되었다고 선전하였음(7.5 중앙방송)

## 4) 광·공업부문

### □ 기술개건 사업

- 2001년도에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경제분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 「기술개건사업」의 역점 추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소관별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신사고」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는 등 간부 및 일반주민들에 대한 경제선동을 강화하였음.

※ 「기술개선사업」: 공장·기업소들의 노후설비를 보수·정비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 기술개선사업은 전력·에너지 및 금속·기계부문 등 전방 연관효과가 큰 선행부문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음.

- 북창화력(160kW), 평양화력(50만kW) 및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과 같은 전력·에너지부문 공장들의 생산공정을 컴퓨터화하고

- 대안중기계연합, 용성기계연합, 김책제철 등 대규모 제철·제강공장들의 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였음.

- 또한 주민들의 일용소비품과 육류 및 섬유류 생산증대를 목표로 경공업과 농축산부문에서도 「기술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로 섬유, 신발 및 된장·간장, 육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및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 주민생활향상 및 2000년도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비중 22.4%)인 섬유산업의 생산정상화를 시도하였음.

### <부문별 기술개선사업 추진현황>

(2001. 12월 현재)

전력·에너지	금속·기계	철도·운수	경공업	농축산업	기타	계
12건 (26%)	11건 (24%)	6건 (13%)	10건 (22%)	4건 (9%)	3건 (6%)	46건 (100%)

- 기술개건사업 추진동향을 지역별로 보면 평양을 중심으로 평남·평북 등의 기술개건사업이 전체의 56.5%를 차지, 서부공업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음.
- 서부공업지역 56.5%, 동부공업지역 21.7%, 여타지역 21.8%

### < 지역별 분포 현황 >

(2001년 12월 현재)

평양	평남	평북	함북	함남	자강	기타	계
14건	9건	3건	7건	3건	5건	5건	46건
(30.4%)	(19.6%)	(6.5%)	(15.2%)	(6.5%)	(10.9%)	(10.9%)	(100%)

- 시기적으로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던 3월부터 IT산업의 강조와 함께 기술개건사업이 본격화하여
  - 5월말까지 39건이 추진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단지 7건에 불과하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 대체로 상반기에는 활발한 데 비해 하반기 들어서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 이는 대규모 재원과 신기술이 요구되는 「기술개건사업」에 대한 북한의 투자여력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볼 때 2001년도 「기술개건사업」은 에너지, 금속·기계 등 소위 「선행부문」과 수출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 「기술개건사업」을 앞세워 공장·기업소 정비·보수를 통한 생산정상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 섬유산업 생산정상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내년도 김일성·김정일 생일맞이 행사를 위한 '배려상품'의 생산증대에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선사업」의 성패여부는 관련된 선진 기술의 도입과 해외자본의 유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개혁·개방이 선행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부문별 동향

### (1) 광업부문

-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석탄공업을 전력·금속·철도공업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4.5)에서 내각총리 홍성남은 보고를 통해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굴진과 갱건설에 힘을 넣어 채탄장수를 늘이고 ▲앞선 채탄방법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채굴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에 힘써 석탄생산량을 늘이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음.

○ '90년대 이후 북한의 석탄생산 동향을 보면

- 신규탄광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90년대 초반 연간 3,000여 만톤에 이르던 생산량이 '00년에는 2,250만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이에따라 최근 북한은 ▲신규탄광 개발, ▲효율적 채탄방법 도입, ▲운반능력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음.
- 연도중에도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개천지구에서는 500만톤의 새로운 탄밭을 발굴하는 등 생산증대에 주력하였음.

○ 연도중 성과를 보면

- 상반기의 경우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8개 기업소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였으나
- 최종적인 연간계획은 순천, 덕천, 북창, 개천지구 등의 연합기업소 차원이 아닌 박천, 태천, 곽산 등 7개 탄광이 완수한 데 불과하며
- '라남의 봉화' 이후 전기석탄공업성 일꾼들을 탄광에 직접 파견하여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목표달성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노동신문」 과 「민주조선」 은 12월에 접어들면서 각종 보도, 사설 등을 통해 석탄생산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는 양상

○ 그러나 함남, 평북 등 「국가자원개발 탐사처」 산하 다수의 탐사대들과 채취공업성 광업연합회사 산하 12월5일청년광산, 연풍광산, 시중광산 등이 연간계획을 달성함으로써

- 탐사분야와 비철금속부문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노동신문(8.27)은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500여만ton 규모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탄밭을 새로이 발굴한 것으로 보도

○ 연도중 광업부문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 지난 5월 '전국 지질학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광물암석 표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그 동안 위축되었던 지질탐사 부문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 10월에는 북한의 대표적 화학공업 원료 생산기지인 「12월 5일청년광산」에 장거리 벨트컨베이어 수송선 및 저광사(貯鑛舍)를 준공(10.9)하는 성과를 보였음.

- 또한 '97년 설립된 북-러 합작회사(「예르침-탄」)는 연산 50만톤 규모의 탄전개발 사업을 추진, 연도 중 러연방 사하공화국으로부터 코크스탄 2,000여톤을 도입하였으며,

-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마그네시아 크링커를 생산하는 단천마그네샤공장이 설비현대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1.2배로 확장하였음.

## (2) 경공업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시 내각총리 홍성남은 보고를 통해
  - 올해에는 “인민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신의주화장품공장과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새로 건설한 경공업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 것”을 촉구하였음.
- 연도중 북한의 경공업부문은
  - 최대 수출품목('00년-22.4%)인 섬유산업의 생산정상화와 내년도 김일성·김정일 생일맞이 행사를 위한 「배려상품」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부문으로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신의주시내 경공업공장(1.21~1.23) 및 평양시 인민소비품공장들(7.8)에 대한 현지지도 등을 통해 생산정상화를 독려한 바 있음.
- 이에따라
  - 섬유, 신발 및 된장·간장, 육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생산능력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공장인 평양화장품공장에 대한 비누, 치약, 화장품 등의 생산시설 공사가 추진되었고

- 강계, 함흥, 평양 등 각지의 기초식품공장들은 설비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할 간장, 된장, 메주 등의 생산에 주력하였음.

○ 연도중 경공업부문의 성과를 보면

- 상반기 기간 중에는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41개(전체목표달성 공장의 41.8%) 단위가 계획을 달성하였으며
- 연간계획은 개성시의 20여개, 평양 60여개, 개풍군의 4개 등 95개(전체의 56.2%) 공장·기업소가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 경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연도중 경공업부문의 주요동향을 보면

- 안주시의 '121호공장'이 '열화학파쇄펄프생산공정'을 도입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종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 평양프로그램센터에서는 신발이나 의류 등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경공업 종합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음.

※ 이 소프트웨어는 경공업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천, 비닐 등에 설계와 재단, 염색 등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음.

- 신발산업에 있어서는 신발연합회사 산하 유원신발수출품 공장, 평양신발공장, 순천구두공장 등 신발산업부문 공장들에 대한 설비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 신발생산의 기초가 되는 신골(신발안에 넣는 틀), 창 형태 등 신발설계의 모든 부문에서 컴퓨터에 의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 평양시 사동구역에는 지난 1월 15일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연산 7천만리터 생산능력의 대동강맥주공장이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음.

### (3) 금속·기계

- o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시(4.5) 내각총리 홍성남은 보고를 통해
  - 금속공업에 있어서는 무산광산을 비롯한 철광산의 만부하 가동과 김책제철 등 제철, 제강소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 기계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자동화된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본보기로 삼아 최첨단 전자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고 기술개선에 필요한 장비들을 원만히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음.

○ 이에따라 연도 중 북한은

- 대안중기계연합, 김책제철, 무산광산 등 주요 제철·제강소와 철광산에 대한 설비현대화·자동화를 추진하였으며
-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파철수집 운동을 전개하여 천리마 제강, 황해제철, 김책제철 등에 전달하였고
- 김정일 위원장은 구성공작기계(2.14), 용성기계(4.11), 라남 탄광기계(8.19), 무산광산(11.4), 북중기계(12.14-16) 등에 대한 현지도를 통해 금속·기계부문의 생산정상화를 촉구하였음.

○ 연도중 금속·기계부문의 성과를 보면

- 상반기에 구성공작기계, 강계기계공장 등 28단위(28.6%)가 계획을 완수한 데 이어
- 연간계획에 있어서도 라남탄광기계연합, 용성기계연합 등 30개 단위(전체의 17.8%)가 계획을 초과달성 하였고
- 특히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계획을 초과(102.2%) 달성한 것으로 보아 금속·기계부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금속기계공업성 부상 안영길은 10.21 중방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省)적으로 운전기계연합회사, 전기기계연합회사, 공작기계연합회사를 중심으로 15개 공장·기업소들이 연간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앞으로 수십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연도중 금속·기계부문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 구성공작기계공장이 컴퓨터에 수치를 입력해 기계부품을 절삭하는 'CNC 구성-10호', '구성125-160형', '구성 125-160-3형' 등 금속가공기계를 개발하였으며
- 금성트랙터공장에서는 종전 천리마호 트랙터(28마력)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유류소비량이 적은 신형 트랙터(60마력) 제품을 생산하였음.

#### (4) 전력

##### □ 전반적 동향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시 내각총리 홍성남은 보고를 통해
  - 현재의 발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전력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1.1배로 늘이며
  - 어랑천발전소, 수해천 영광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이에따라 북한은 '99년이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10여개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중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예성강발전소, 남강발전소, 태천3호발전소 등의 조기완공에 주력하는 동시에

- 북창화력, 평양화력, 3월17일발전소 등과 같은 대형 발전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술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각종 공장·기업소의 발전설비, 송배전설비 등 각종 설비의 교체·정비와 송배전계통의 컴퓨터화에 역점을 두었음.

※ 주요 발전소들에 대한 급전(給電)현대화의 일환으로 70여개 대상에 대해 컴퓨터설치 추진

○ 연도중 전력생산 성과를 보면

- 상반기에는 수력발전이 전력생산계획을 103.7% 달성하였고 주요 탄광연합기업소 들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 연간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목표를 완수한 발전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석탄생산 또한 원활치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2001년도 전력생산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력수요는 물론 목표에도 미달한 것으로 보임.

○ 연도중 북한의 전력관련 주요 동향을 보면

- 전력과 관련된 국제협력으로 북한의 전력부문 설비현대화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원확보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으며

※ 북러 정상간 모스크바선언(8.4) 5항에서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

- 제54차 북·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54차 회의 결정서’를 채택하였음. (9.24)

※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하천인 압록강·두만강의 수자원을 공동 이용한다는 취지 아래 '55. 4 발족한 회의체로 수풍(70만kW), 운봉(40만kW), 위원(39만kW), 태평만(19만kW) 등 4개 수력발전소의 운영문제를 협의

- 발전설비 수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파키스탄의 아자드 캐시미르주에 위치하여 1월 12일 조업을 시작한 수력발전소의 전력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짐(2.28 KOTRA)

※ 동 발전소는 1.6 MW 발전용량의 소규모 발전소로 총 비용은 1.8 백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북한이 판매한 전력장비는 65만 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

○ 연도중 북한은 종래의 매우 작은 중소형발전소 건설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건설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음.

- 이는 그 동안 건설한 대부분의 중소형발전소가 갈수기·결빙기 등 계절적 변화에 민감하여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연도중 건설 중이거나 향후 건설 계획인 중소형발전소가 370여개, 완공한 발전소가 대략 80개(도합 1.8만kW) 정도로 추정됨.
- 건설 건수면에서는 예년의 건설목표(500개/년) 및 지난해 건설실적(130개)에 비해 매우 감소한 양상
- 전반적인 건설양상을 보면 2001년도의 경우 예년보다 완공된 숫자는 감소하였으나, 개당 평균 발전능력은 다소 확대되었음.

### <중소형발전소 건설 현황>

(단위:kW)

구 분	~'96	'97	'98	'99	2000년	2001년	계
개 수	185	300	5,000	1,000	130	80	6,695
도합발전능력	90,000	60,000	36,000	80,000	26,000	18,400	310,400
개당 평균 발전능력	486	200	7	80	200	230	46

※ 북한 보도자료 종합 추정

- 이러한 발전소규모의 확대는 그 동안 건설해 왔던 중소형 발전소들이 지나치게 소형(평균 43kW)으로 전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자강도의 경우 '98년 이후 400여개 56,000kW(개당 평균 140kW)를 건설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65개 3만여kW(개당 평균 460kW) 건설 추진

※ 이와 관련 중앙방송(2.24)은 “이 발전소들은 지난 시기에 건설한 것보다 대체로 덩치가 크고 최대 갈수기에도 중단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도

- 황해북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152개 15,638kW(개당 평균 103kW)를 조성하였으나, 앞으로 123개 111,752kW(개당 평균 908kW)를 건설할 계획
- 또한 중소형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함으로써 각 지방단위의 비계획적, 무작위적 건설로 인한 난립폐해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설방향을 모색하였음.
- 대규모의 수로공사(40km)를 통해 금년 8월 함경남도 성천강에 33개의 발전소를 계단식으로 완공한 데 이어
- 이러한 성과를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수동천·남대천(함남), 비류강(평남) 등에도 계단식발전소 건설 추진
- 특히 계단식발전소 건설을 통해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수량의 조절을 통한 물의 종합적 이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중소형발전소는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한 바 있으며, ... 갈수기에도 전력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연계를 계단식으로 건설하고 물량을 확보하여야 함”(「경제연구 제3호(01.8)」)

- 한편 전력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시도하여 함경남도 성천강에 건설된 「성천강32호발전소(900kW급)」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전력생산공정을 자동화하였음.

-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전압(220kV) 및 주파수(60Hz)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 동일한 수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역적으로 볼 때는 현재 건설중이거나 향후 건설 계획인 발전소의 경우 황북, 함남, 자강도 지역이 71.3%를 점하고 있으며
- 연도중 완공한 발전소에 있어서도 65.8%를 차지하고 있음.

**<2001년도 도별 중소형발전소 건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황북	함남	자강	함북	양강	평남	평북	강원	기타	계
건설중 · 계 획	123 (32.7%)	80 (21.3%)	65 (17.3%)	40 (10.6%)	17 (4.5%)	16 (4.3%)	20 (5.3%)	10 (2.7%)	5 (1.3%)	376 (100%)
완 공	8 (10.5%)	24 (31.6%)	18 (23.7%)	3 (3.9%)	1 (1.3%)	4 (5.3%)	10 (13.2%)	5 (6.6%)	3 (3.9%)	76 (100%)

○ 이와같이 볼 때 연도중 북한은

-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있어 수적인 실적 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규모가 확대되고

- 갈수기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위주의 건설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일은 황북도 「범안발전소」 현지지도(7.11)시 “계절적 영향을 받음이 없이 사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률적인 발전소를 건설한데” 대해 높이 평가

- 2002년에도 북한은 보다 큰 규모의 중소형발전소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컴퓨터 도입을 통한 전력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추진 함으로써

-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1,000kW 미만의 소형발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실제 가동이 가능한 중소형발전소는 20% 내외에 불과하여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난 '97년 이후 최소한 1,000여개 이상을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함경남도의 경우 지난 5.29 중방을 통해 “도(道)적으로 230여개의 크고 작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

## 5) 수송 · 통신부문

-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철도운수부문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설정하고 철도 시설의 개건 · 현대화에 주력하여 왔음.
- 연도중 철도부문의 주요 건설동향을 살펴보면
  - 북-러정상간의 모스크바 공동선언(8.4), 북-러 철도협력협정 체결(8.14) 등을 통해 TKR과 TSR을 연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래
  - 3차에 걸쳐 러시아 철도대표단이 방북(3, 9, 10월)하여 실무적 차원의 북한철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TKR-TSR 연결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음.
  - 또한 연도중 평양-신의주간 철도 단독선(224.8km) 전기화 공사를 추진하는 등 철도 전기화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철도관리의 개선을 위해 수송 조직과 지휘를 컴퓨터화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음.
- 도로부문에서는
  - 각 지역 도로의 포장 · 정비공사에 주력하여 사리원시 진입도로, 원산시 시내 갈마도로의 포장을 완료하였고

※ 사리원 진입도로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원산시 갈마도로는 8.28 김정일의 '갈마휴양소' 방문이후 착공

- 평남 북창군에서는 도로 포장·정비공사를 진행, 4.7km 구간을 재포장하고 주변도로를 정비하였으며
- 이외에도 개성시 개풍~공민왕릉 및 주변도로의 정비, 황북 연산군 연산읍~수안군 평원리간 확장공사도 추진 하였음.
- 따라서 2001년도에 진행된 도로 포장·정비는 사리원시 및 원산시 시내교통과 북창군 지역의 수송문제를 보다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수송부문을 살펴보면
  - 최고인민회의 10기 제4차회의(4.5)에서는 「갑문법」을 제정 하였는 바
  - 동 법은 향후 남한 및 외국선박의 갑문이용과 관련 통과료 등 대외 수송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항공부문에서도 기존의 낙후된 공항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확장을 위한 「결정」”이 채택 되었음.(러시아의 소리, 10.4)

○ 통신부문에서는

- 연도중 5월에 평양전화국에서 북한전역에 걸친 컴퓨터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는 바 평양과 지방도시간의 통신망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 북한은 10여개의 지역망과 100여개의 부문망을 중심으로 전지역에 걸쳐 컴퓨터망을 형성·운영하고 있다고 선전(5.11, 중방)

- 「라선국제통신센터」의 조업이 시작(8.25)되어 향후 통신 수요 증가를 보장하고 대외교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라선국제통신센터」(9층, 연건평 7,000㎡)는 북한과 태국의 합영 기업인 동북아전신전화회사가 1,500만달러의 건설비용을 들여 착공 2년 2개월여만에 먼저 20만회선 규모로 건설

-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금범 체신상을 단장으로 한 체신대표단이 9월에 중국을 방문하였는 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체신기술 도입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통신 현대화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전반적인 통신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6) 과학·기술부문

- 금년들어 북한은 연일 “21세기=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컴퓨터 산업” 등으로 등식화하면서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며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변도약」의 중심고리로 집중 강조하고
  - 각종 과학기술 전시회, 토론회, 언론선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IT산업 중요성 부각시키면서 인민경제 부문별로 정보화 추진에 주력하였음.
- 이를 위해 북한은 IT산업을 「새로운 자력갱생」 기치하에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 PC생산, S/W개발, 정보통신망 확충 등 대서방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위한 대외협력에 주력하였음.
- ※ 김정일도 1월에 上海 浦東 S/W단지를 시찰하는 등 금년에도 IT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 특히 북한의 현재 열악한 기술·자본 여건하에서는 본격적인 IT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인재 양성 및 IT마인드 조성에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음.
  - 2001년 4월에 만경대학생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2 고등중학교 등에 「컴퓨터 수재 양성기지」를 창설 하였으며

-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기술대학」, 「김책공대 컴퓨터 센터」,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200여개 고등중학교 및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

- 그러나 북한의 IT관련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보급률, 이용가능 인구 등에서 취약한 개발초기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당국의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였음.

- 컴퓨터 보급대수는 12만여대, 전문인력은 7,000여명으로 추정

※ 남한의 컴퓨터 보급대수는 1,500만대, 전문인력은 94만명 수준

- 한편 인터넷부문에서도 일부 특정기관간에 '광명'이라는 광역전산망(인트라넷)을 구축하는데 그쳤음.

- 동 전산망을 통해 내부적인 자료검색 및 e-mail은 가능해졌으나 국제통신망 접속은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임

- 다만 북한은 IT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을 중심으로 S/W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일부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수준이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음.

- 북한의 S/W개발부문은 언어처리, 애니메이션, 암호화 기술등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도중 언어처리, 멀티미디어, 생산자동화 등 40여건의 S/W 개발

○ 기타 2001년도 북한의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진”을 중점과업으로 설정한 이래

-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부문의 육성을 위해 축전, 전시회,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대학, 연구소, 공장·기업소의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혁신 사례를 부문별로 선전함으로써 과학기술 향상의 「뭉」을 조성하는 한편

※ 제16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전국기술혁신경험 토론회, 평양 국제과학기술 도서전시회, 부문별 과학기술발표회 등 30여 차례의 과학기술행사 개최

※ 전기기관차 내부과전압제한기(평양교통대학), 감자바이러스 검사법(농업과학원), 미생물에 의한 종이생산방법(종이과학연구소),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김책공대 집적회로연구소) 등 금년 들어 40여건의 신기술 개발

- 대외적으로도 과학기술대표단을 파견하거나 초청하여 대외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기울였음.

※ 북·중 과학기술협조지정서 조인(3.28), 제4차 북-베트남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합의서 체결(10.18) 등

○ 이와 같은 북한의 과학기술 동향은

-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보다는 자동화공업, 반도체 등 첨단과학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연구성과도 초보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1년도 통신 및 과학기술관련 행사 현황 >**

일 시	행 사 명
1.30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23~26	제16차 중앙과학기술축전
4.20	모범기대창조 발단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4.20~23	모범기대창조 발단 40돌 기념 공구·부속품전시회 및 전국기술혁신 축전
5.2~3	제3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5.4	김만유병원 창립 15돌 학술발표회 및 과학기술전시회
5.5	정보산업시대에 관한 주체적 사상이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5.14~17	전국지질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광물표본 전시회
8.16~29	제2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8.28	청년절 10돌 즈음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8.30	전국학생소년궁전 및 회관 과학기술부문 소조원 경연
9.6	전국학생소년궁전·회관 소조원들의 수학 및 컴퓨터 경연
9.12~16	제2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
9.21~10.8	제12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10.2	독일 국경절 즈음 독일 과학기술도서전시회
10.22~25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
11.1	전국양어부문과학기술발표회
11.19~20	전국 산림분야 과학기술발표회
11.26~30	전국제1고등중학생들의 과학착상경연
11.28~29	전국전자자동화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29~30	전국 수의학산부문과학기술발표회

## 7) 대외경제부문

### (1) 대외무역

- 연도중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일본의 대북 쌀 무상지원에 힘입어 외형상 전년비 50.8% 대폭 증가한 29.7억 달러로 잠정 추정됨. (북한의 무역구조 및 월별 추세변동 분석 결과)
  - 대중교역은 6.3억 달러로 전년비 28.6% 증가, 대일교역은 12.8억 달러로 전년비 17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국 수출은 선철·철 반제품 등 철강류 수출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입은 광물성 연료, 곡물, 학생복 등이 크게 늘었으며
  - 대일본 수출은 어패류 등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대일본 수입은 곡물, 인조絲·섬유, 건설장비 및 산업설비 부품 등 기계류 수입이 늘었음.
- 그러나 일본의 대북 무상지원을 제외한 상업 베이스의 실질 무역규모는 20.5억 달러로 전년비 4.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의 대일 실질 무역규모는 쌀 무상지원분(9.2억 달러)을 제외하면 3.6억 달러로 전년보다 오히려 21.7%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상업베이스의 실질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해 (8.5억 달러) 보다 늘어난 8.9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북한의 이와같은 구조적 入超 현상은 연도중 전반적인 경제 토대 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을 위해 수출보다 경제건설용 수입 수요를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구 분	2001년	2000년	증가율
무역총액 (실질무역총액)	29.7억 달러 (20.5억 달러)	19.7억 달러	50.8% (4.1%)
수 출	5.8억 달러	5.6억 달러	3.6%
수 입 (실질수입총액)	23.9억 달러 (14.7억 달러)	14.1억 달러	69.5% (4.3%)

- 2001년도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도 4.3억 달러보다 약 9.3% 감소한 3.9억 달러 내외로
  - 반입은 전년동기비 약 13% 증가한 1.7억 달러, 반출은 전년동기비 약 19% 감소한 2.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남북교역의 감소는 남북간 운송여건 및 제도적 장치 미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대 테러전쟁 등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2) 대외경제협력

○ 금년중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의 정상 교환방문을 통해 이들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음.

- 중국과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1.15-20), 장쩌민 주석의 방북(9.3-5)을 통해 경제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 장쩌민 방북시 식량 20만톤, 디젤유 3만톤의 대북지원을 약속

- 러시아와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7.26-8.18)시 TKR/TSR 연계문제, 채무상환 및 신규차관 도입문제, 발전소·제철소 등 기간산업공장의 현대화문제 등을 협의하였는 바

-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시혜적·일방적 성격의 지원인 반면 북·러간 경제협력은 쌍방 호혜적 경제실리 획득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됨.

○ 연도중 대외 투자유치·교역확대를 위한 북한 경제대표단 해외 파견 및 대북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외국 경제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증가하는 등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활동이 활발하였음.

- 지역적으로는 경협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이 「초청」을 크게 압도하였으며

- 경제대표단의 방문 목적이 원자재·설비·기술도입에 집중되었음.

※ 연도중 북한의 경제대표단 초청·방문회수는 전년비 30% 이상 증가

○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 강화는

- 북한이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신년 공동사설)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 서방국과의 통상 확대,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지원 및 선진기술 도입 등 경제적 실리 추구를 바탕으로
-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력 회복을 모색하려는 경제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외국 경제대표단 북한방문 동향 >**

시기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2.6~20	EU경제협력대표단 (반데 본 주한 EU대표부 참사관)	· 대북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3.16~20	러 철도부장관(악쇼네크)	· 북·러 철도장관회담 개최 · TKR/TSR 연결사업 지원문제 협의
3.31~4.7	네덜란드 경제대표단(바우든 수출진흥청장)	· 발전설비 수출 등 경험문제 논의
5.1~8	호주 광업·인프라조사단	· 광산·항만 등 인프라 실태 조사
5.4~11	중국 바오산 강철공사대표단	· 금속공업 실태 조사
5.7~10	호주 IT·농업기술사절단	· 평양국제무역박람회 참가
5.21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장관	· 북·바이에른주 경제공동위 구성 협의
7.2	오스트리아 경제노동부대표단	· 투자환경 조사
9.4	러시아 철도실무대표단 1진	· 북한 철도 기반시설 조사
9.15	러시아 철도실무대표단 2진	· 북한 철도 기반시설 조사
10.16~20	영국 경제사절단	· 대북 투자환경 조사
11.13~17	태국 정부무역대표단	· 경제협력방안 협의
11.17~20	쿠바 정부경제대표단	· 21차 경제과학협의위원회 참석

**< 주요 북한 경제대표단 외국방문 동향 >**

시기	대상국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2.13~3.2	호주·인니 ·브루나이	무역대표단(무역성 부상 김동명)	· 경협 확대 협의
2.23~3.10	미국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표단	· 수해방지 대책 및 농업증산 협의
2.27~3.4	미국	경제시찰단(외무성 부국장 한성렬)	· 국제상거래 학술회의 참석 · IMF·IBRD 관계자 면담
2.28~3.10	이탈리아	경제·무역대표단(금속 기계공업상 전승훈)	· 제철·섬유부문 투자협의
3.13	미국	농업대표단(농업성 부국장 이성조)	· 축산업 관련 시설 방문
3.26~28	중국	과학기술대표단(과학원 부원장 강동근)	· 정보산업부문 협력문제 협의
3.28~4.5	대만	북한·대만 민간경제 기술교류협진회대표단	· 대만기업 대북투자 협의
4.28~5.2	태국	무역대표단(무역성 부상 이용남)	· 쌀도입문제 등 협의
6.16~29	스페인, 벨지움,독일	경제사절단(무역성 부상 김영재)	· 기계설비 도입 및 투자유치 협의
6.25~7.4	일본	국제무역촉진위대표단	· 생산설비공장 방문
6.26	일본	농업기술교류대표단	· 감자재배·가공기술 협의
7.24	러시아	철도성대표단(철도상 김용삼)	· TKR/TSR 연결문제 협의
9.19~24	독일	경제사절단(무역성 부상 김영재)	· 바이에른州에서 북한투자설명회 개최
12.3	태국	무역대표단	· 무역·경협확대 협의
12.9	러시아	수산대표단	· 15차 어업공동위 참석

○ 또한 북한은 2001년도에 대서방권 경제분야에 대한 해외연수도 강화하였는 바

- '95~'98년의 「고난의 행군」 기간 중에는 정치체제 불안으로 연수생 수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증 추세를 보였음.

○ 연도중 북한의 주요 해외 경제연수 사례를 들어보면

- 경제관료 IBRD 시찰(2.27~3.4), 미 포틀랜드주립대 시장경제 연수(5.22~29), '제네바 다자협상실습연구소' 국제통상 분야 연수(5.14~6.23) 등을 들 수 있으며

- 이와 함께 농업연수, 에너지부문, 의료기술부문 등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해외연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연수내용에 있어서는 국제경제학, 보험, 금융·국제거래·회계·통계 등 시장경제 및 무역실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농축산업·의료 등 산업부문의 선진기술 연수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대서방권 경제·기술연수생 파견은

- 아직까지는 대부분 UNDP, UNIDO 등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 연수기간도 1개월 미만의 산업시설 견학이거나 6개월~1년 미만의 단기연수에 머무는 등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 '97년이래 IMF·IBRD 등 국제금융기구가 UNDP와 협력하여 북한  
관료·전문가 대상으로 워크샵, 경제연수 등 지원

※ 올해 북한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에 북한 대학생 4명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및 운영' 관련 위탁교육 요청

○ 북한은 이들 연수생들을 무역성 관리, 대외무역상사(100여개),  
연합회사, 각급 수출전문 공장·기업소 간부 등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외무역 및 경험관련 전문가 수요  
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해외연수 강화는 적극적인 시장  
원리 도입 차원이라기 보다 '우리식 사회주의' 기조 하에  
국제경제체제에 적응하려는 '변화적응적' 노력의 일환으로

- 경제·무역부문의 핵심적인 실무 책임자들을 시장경제 전문  
가로 양성하여 서방사회에 대응케 하는 한편

-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제고를 통해 무역 및 경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3. 종합평가 및 전망

- 연도중 북한이 추진한 경제시책방향을 보면 상반기중에는
  - 침체된 생산분위기 일신을 위해 개방적인 「새로운 자력갱생」 노선을 표방하는 가운데
  - 신사고, 종자론 등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실리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 「단번 도약론」을 제기하면서 IT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 IT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였음.
  
- 하반기에는 「라남의 봉화」 기치아래 사상결집을 통한 생산분위기 조성에 집중하였는 바
  - 공장·기업소의 보수·정비를 「과학기술수준 향상」으로 미화 포장하면서 이를 통한 생산정상화를 추구하고
  - 내년도 김부자 60회·90회 생일을 ‘대대적인 축제’로 맞이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의 「配慮商品」 공급 확대에 주력하였음.
  
-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보면, 농업부문은 여타 부문보다 호조였던 것으로 평가됨.
  - 3~6월중 큰 가뭄으로 밭작물이 일시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부터 기상조건 양호 등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호조를 보였으며

- 염소목장, 양어장, 제염소 등 부식 생산기지의 집중 건설로 「먹는 문제」완화에 기여하였음.
- 광·공업 및 건설부문에서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광·공업부문은 「기술개건사업」을 중점 추진, 공장·기업소의 보수·정비에 주력함으로써 전년보다 생산이 다소 증대하였음.
    - ※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28%에서 30% 내외로 다소 제고
  - 건설부문 역시 주민 사기 진작을 위한 후방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주력함으로써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 ※ 주택건설(대략 1만여세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160km), 황남도 토지정리사업, 원산만제염소 2단계확장공사(200정보) 등
- 무역부문은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대외경협부문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상업베이스로 볼 때 연도중 수출은 6억 달러 수준, 수입은 15억 달러 수준으로 무역 적자폭이 전년(5.9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 김정일의 방중(1월)·방러(7월) 및 경제대표단의 잇단 교환 방문을 통한 자원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만한 구체적 성과는 별무하였음.
    - ※ 김정일의 중국방문에서는 IT산업에, 러시아방문에서는 TSR/TKR 철도 연결사업에 지대한 관심 표명하였으며, 연도중 EU대표단, 호주, 미국, 이탈리아 등 20여개국과의 자원외교 전개

- 결론적으로 2001년도 북한경제는 전부문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도 낮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
  
- 2002년도 북한 경제는
  - 대내적으로는 김부자 생일행사의 ‘대대적’ 개최를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라남의 봉화」 기치아래 집단적 생산문화 (계획경제), 자본주의 비판 등에 주력하면서
  -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외자유치를 위해 상황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이원적 경제시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2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 남북관계 호전, 대미·일 관계개선 등으로 남한 및 국제 사회로부터 외부수혈이 확대되지 않는 한
  - 내자동원의 한계로 노동투입 위주의 선동적 경제관리 방식에만 의존함으로써
  - 2001년도와 같은 제로성장 내지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부록 >

## 2001년도 북한경제 주요 일지

■ 1.1(월)

-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보도

■ 1.5(금)

- 신년 「공동사설」 제시 과업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1.7(일)

- 함경남도 및 평남·황남·개성시 등, 신년 공동사설 제시 과업관철을 위한 군중대회 진행

■ 1.8(월)

- 평북·자강·함북·강원도 등, 신년 공동사설 제시 과업관철을 위한 군중대회 각각 진행

■ 1.11(목)

- 황북 은파군, 은파발전소를 새로 건설(중앙TV)

■ 1.15(월)

- 만경대학생소년궁전·평양학생소년궁전과 그 부속학교인 금성제1고등중학교·금성제2고등중학교에 컴퓨터 수재양성기지 건립
- 대동강맥주공장 착공
- 김정일 위원장, 중국 비공식 방문

■ 1.16(화)

- 자강도 중소형발전소 관리국, 지난 3년간 道內에서 4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56,000kW를 생산했다고 보도(중방)
- 함남 서함흥-서호간 협궤전철에 소형전기기관차 운행 개시(중방)

■ 1.17(수)

- 김정일 위원장, 푸둥(浦東)개발지구·상하이증권거래소 등 참관

■ 1.18(목)

- 김정일 위원장, 상하이 바오산강철공사, GM 승용차공장, 화흥전자유한공사 등 참관(1.18~19)

■ 1.20(토)

- 김정일 위원장, 중국 국가주석 「江澤民」과 회담(베이징)
- 김정일 위원장, 강택민 중국 당 총서기 초청의 중국방문 일정 (1.15-20) 종료 및 귀환

■ 1.23(화)

- 김정일 위원장, 신의주시내 신의주화장품공장 · 법랑철기공장 · 기초식료품공장 등 현지지도(1.21-23)

■ 1.25(목)

-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메기공장 건설(중앙TV)

■ 1.27(토)

- 내각 위원회 및 성·중앙기관, 당·행정 책임일꾼들,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타조목장 등 공장·기업소 참관

■ 1.30(화)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문 화공전)

■ 2.1(목)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진행(1.31-2.1, 인민문 화공전)

■ 2.3(토)

- 각지 도·시·군당 책임일꾼들, 황해남도 토지정리장 참관

■ 2.6(화)

- 유럽동맹(EU) 경제협력대표단, 평양 도착

■ 2.8(목)

- 평양프로그램센터, 한글문서편집프로그램 '창덕 6판' 개발·출시 (중앙TV)
- 「남북전력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평양)

■ 2.13(화)

- 신의주화장품공장 조업
- 정부무역대표단(단장: 무역성 부상 김동명), 호주·브루나이 방문차 평양 출발

■ 2.14(수)

- 김정일, 평안북도 구성공작기계공장과 태천발전소 현지지도

■ 2.23(금)

-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 제2일 회의 진행(평양)

■ 2.24(토)

- 경제대표단(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이탈리아 방문차 평양 출발

■ 2.28(수)

- 수도건설지휘부, 생산과 건설·운수부문에 필요한 기공구전시회 개최

■ 3.2(금)

- 각급 학교 학생 수백만명에게 “2월의 명절을 계기로 새 교복이 일식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중방)

■ 3.4(일)

-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호의 공업용수를 이용한 새 발전소 건설 보도(중방)

■ 3.5(월)

- 토지개혁법령 공포 55돌 즈음 노동신문 사설, '토지혁명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 것이다' 보도(중방)

### ■ 3.7(수)

- 황북 수안군에 현대적 설비를 갖춘 '농민휴양소'(건평 500m<sup>2</sup>) 건설 보도(중방)

### ■ 3.9(금)

- 평양집적회로공장, 대용량 대출력 정류소자 및 조정용 정류소자 개발에 진력 보도(중방)
- 황해남도 토지정리 제2단계작업 추진 보도(평방)
- 함남 함주군소재 홍봉발전소 착공

### ■ 3.10(토)

- 과학원 자연에너지개발센터, 연재탄을 이용한 「상부공기조절식 보온부뚜막」 개발
- 경제대표단(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이탈리아 방문후 평양 도착

### ■ 3.12(월)

- 조선컴퓨터센터, 심장·뇌혈관계통 질병 '예보진단 체계' 개발
- 제품의 규격화와 질제고와 관련하여 국가규격은 「국규」로, 영문으로는 「KPS」로 표시할 것임을 보도(중앙TV)

### ■ 3.13(화)

- 희천군 청진강 상류소재 언제 착공

### ■ 3.14(수)

- 평북도 남시제염소에서 올해 첫 소금 생산

### ■ 3.15(목)

- 4월5일 1호 및 2호 중소형발전소 조업
- 함경남도 금진강 홍봉발전소 건설 착공

■ 3.16(금)

- 러시아교통성대표단(교통상 「니콜라이 악쇼넨코」), 평양 도착

■ 3.17(토)

- 북·러 「철도운수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 데 대한 합의서」 채택

■ 3.22(목)

- 김정일위원장, 방북중인 중국공산당대표단 曾慶紅일행 접견 및 평양시 교외에 새로 건설된 家禽목장 참관
- 「전국품질관리부문 열성자회의」 진행(3.21-22, 인민문화궁전)

■ 3.25(일)

- 황남 해주시, ‘軍民대회’ 진행

■ 3.26(월)

- 「전국축산부문 열성자회의」 진행(인민문화궁전)
- 황해남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만 정보의 토지정리 완료 후 2단계공사 착수 보도(조선신보)
- 당 국제부 대변인, “중국 국가주석 江澤民의 금년 중 방북 및 대북 디젤油 15,000톤의 무상제공” 합의사실 보도(중·평방)
- 정부과학기술대표단(과학원 부원장 강동근) 방중

■ 3.28(수)

- ‘물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숙망을 헤아리시어’ 제하로 광복직후 김일성이 연백벌에 물을 공급하였다고 보도(평방)
-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7차회의 의정서」 조인(베이징)

■ 3.29(목)

- 광명성제염소에서 올해 첫 소금생산 보도(중방)

■ 3.30(금)

- 평남소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개최
- 만경대학생소년궁전·평양대학생소년궁전 등 4개 단위(컴퓨터수재 양성기지)에 김정일이 보내는 최신형 컴퓨터 등 교육설비 전달모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 3.31(토)

- 네덜란드경제대표단(경제성 국제무역 및 투자위원장 「도미니크 보데인」) 평양 도착

#### ■ 4.5(목)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2000년 국가예산 집행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보고 및 채택, 가공무역법·갑문법·저작권법 승인, 조직문제 토의 등

#### ■ 4.6(금)

- 평양시 3만세대 살림집 건설착공(남포시 강서구역 장진리)
- 북·네덜란드 '무역·경제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평양)

#### ■ 4.7(토)

- 국가관광총국 대표단(총국장 여승철), 태평양·아시아여행협회 전시회 (싱가포르) 및 세계관광기구 제50차 총회(말레이시아) 참가차 평양 출발

#### ■ 4.8(일)

- 「전국 과수부문 일꾼회의」 진행(북청군)
- 북청군 용전리 문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전국 국영과수농장·협동농장들에 과수업 발전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는 쫓기모임 개최

#### ■ 4.11(수)

- 김정일위원장,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대형 공작기계공장·성천강전기공장 등 현지지도

■ **4.12(목)**

- 베트남 정부가 대북지원한 백미 5천톤 기증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4.13(금)**

- 고려의학종합병원 개원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애기젓가루공장 조업

■ **4.14(토)**

- 중국 베이징원림국대표단(단장: 양개상), 제3차 「김일성화전시회」 참가차 평양 도착

■ **4.16(월)**

- 김정일위원장, 제757 군부대 건설 염소목장을 시찰

■ **4.19(목)**

- 김정일위원장, '김승환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현지지도
- 김정일,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2억 4천 660만원 (※147차에 걸쳐 총 446억 3만 3천원) 전달 보도(중방)

■ **4.20(금)**

- 「모범기대창조운동」 40돌 기념 공구 및 부속품 전시회 진행(평양방직기계공장)

■ **4.21(토)**

- 만경대ړ트겐공장, 오존물소독기(정수기) 개발

■ **4.24(화)**

- 동신1호발전소 · 형제골발전소 · 추포발전소 등 각각 조업
- 러시아 임업대표단(공업과학 및 기술공정성 부상 「위탈리 우쑈브」), 평양 도착

#### ■ 4.25(수)

- 김정일위원장, 제671 군부대 건설 오리공장 시찰
- 창광원식 목욕탕인 「어은원」 개원

#### ■ 4.26(목)

- 제16차 「중앙과학기술축전」(4.23-26) 폐막
- 타조종합목장에 보내는 김정일의 운전기재 · 농기계 전달모임

#### ■ 4.27(금)

- 북 · 러 '경제공동위 임업분과 제4차회의 의정서' 조인

#### ■ 4.30(월)

- 김정일위원장, 황해남도 안악군과 삼천군의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 ■ 5.2(수)

- 유럽동맹대표단 평양 도착, 김영남과 회담(만수대의사당)

#### ■ 5.3(목)

- 제3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진행(5.2-3, 인민 문화궁전)

#### ■ 5.5(토)

- 중국 상해보선강철공사 대표단(단장: 부이사장 겸 총경리 「에버 준」), 평양 도착

#### ■ 5.7(월)

- 김정일위원장, 제567 군부대 건설 임진강 제1발전소 시찰

- 제4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3대혁명전시관)

#### ■ 5.8(화)

- 김정일위원장, 황해남도 강령군 내동협동농장 현지지도
- 「조선컴퓨터센터」, 「음성인식 프로그램 등 최첨단 프로그램」 개발 보도(중앙TV)

#### ■ 5.9(수)

- 평양시 상원군 문포천에 새로 건설된 「5.7다리」 및 「문포천다리」· 「풍년다리」 준공

#### ■ 5.10(목)

- 김정일위원장,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현지지도

#### ■ 5.12(토)

- 평양에 건설된 현대적 컴퓨터생산기지, 생산 개시 보도(중방)
- 도시경영대표단(단장: 도시경영상 최종건) 중국방문차 평양 출발

#### ■ 5.13(일)

- 김정일 위원장, 제534군부대 메기공장 시찰 및 황해남도 과일군 과수종합농장 신대농장·포구농장·용수포해수욕장 등 현지지도
- 내각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함경남도내 용성기계연합기업소·성천강전기공장·함흥-마전협궤철길 등 참관

#### ■ 5.14(월)

- 황해북도 신계군·곡산군·수안군 등지에서 심한 가뭄으로 강냉이·남새농사 등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중방)

#### ■ 5.16(수)

- 최근 국토환경보호성 국토계획연구소 과학자들이, 지리정보체계

“금수강산” 1판을 완성했다고 보도(중앙TV)

- 「전국 지질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광물표본 전시회」 진행

#### ■ 5.17(목)

- 문덕 이남의 서해안지역을 비롯한 황남북·강원도·평남·함남 등지에서 왕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 계속 보도(중방)

#### ■ 5.18(금)

- 평양건설건재대학 연구소, 건축설계 자동프로그램 「유경1.0, 1.5」 및 다매체 프로그램 「조선의 민족건축(평양편)」, 「고구려 벽화무덤」 등 개발

#### ■ 5.20(일)

- 농업과학원 컴퓨터중심, 농업생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도입 보도(평방)
- 위원발전소, 컴퓨터화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 진행 보도(중방)
- 성 및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임진강 제1호발전소 참관

#### ■ 5.21(월)

- 김정일노작 「건축예술론」 발표 10돌 기념보고회 및 「5.21건축축전」 (5.18-21, 인민문화궁전)
- 금성제1,2고등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김정일의 선물 전달모임 (만수대학생소년궁전)
- 북·독일 바이에른주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만수대의사당)

#### ■ 5.22(화)

- 평양전화국의 전국적인 컴퓨터통신망 운용 보도(중앙TV)

#### ■ 5.23(수)

- 황해북도 황주군·봉산군·송림시 가뭃극복노력 보도(중방)

- 기상수문국 중앙예보연구소 부소장, 봄철 가뭄이 3월부터 80일간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중앙TV)

#### ■ 5.24(목)

- 김정일 위원장이 2000-2001년중 인민대학습당에 70여 차에 걸쳐 컴퓨터 과학기술도서·설비 전달 보도(중방)
- 평안남도 평성시·대동군·증산군·온천군·평원군·성천군과 평안북도 영변군·운산군·박천군의 가뭄극복 노력 보도(중방)
- 김정일위원장, 함흥시 청년염소목장·함흥농장 분장 등 현지지도

#### ■ 5.29(화)

- 「북·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 40차회의 합의서」 조인(평양)

#### ■ 5.30(수)

- 함북 도인민위 과학기술국 과학기술통보실, 도내 공장·기업소·기관을 망라하는 컴퓨터지역망 확대사업 진행(중·평방)

#### ■ 5.31(목)

- 기상수문국 중앙예보연구소, 「기상수문자료종합봉사체계」 작성·제공 보도(중앙TV)

#### ■ 6.1(금)

- 과학원 생물분원 식물학연구소,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큰 새 버드나무 육종 성공 보도(중방)

#### ■ 6.2(토)

- 도·시·군 당 간부들, 김정일위원장이 현지지도한 함경남도내 현장 참관(6.1-6.2)
- 철도성대표단(철도상 김용삼),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장관급회의」(아제르바이잔) 참가차 평양 출발

#### ■ 6.4(월)

- 기상수문국 중앙예보연구소의 통보 인용, 지난 3월초부터 현재까지

90일간 왕가물 ·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중앙통신)

■ 6.6(수)

- 말레이시아 종려기름에 관한 토론회 및 종려기름제품 소전시회 개최(평양 고려호텔)
- 일본정부의 대북 50만톤 식량지원 발표(2000.10.6) 이후 현재까지 20만톤 납입사실 보도(평방)

■ 6.9(토)

- 함경북도 어대진 제염소 소금생산 개시(중방)
- 북한 전역이 최악의 장기가물에 걸친 고온현상으로 “관측사상 최대값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중앙통신)

■ 6.11(월)

- 천내군, 새 양어장 건설

■ 6.12(화)

- 황해남도 용천군 및 증산군 · 개천시 등 돌격대원들, 수만정보의 새땅 개간 및 토지정리 완수 보도(중방)

■ 6.18(월)

- 내각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함흥시 신흥지구 혁명전적지 및 청년염소목장 등 참관(6.17-18)
- 시사논평, ‘조 · 미 회담에서는 마땅히 전력손실 보상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보도(평방)

■ 6.25(월)

- 원산 갈마휴양소 준공
- 북 · 나이지리아 「곰베州政府」 간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평양)

■ 6.28(목)

- 주북 스위스 아베베대표부 개설식

■ 7.4(수)

- 평양원예총회사 ·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총재 양빈)간 「평양 유럽아시아합영회사」 창설 계약서 조인(인민문화궁전)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표단(서기장 장락준), 방일(6.25-7.4)

■ 7.7(토)

- 김정일위원장, 황해남도 태탄군 유정협동농장 · 재령군 재천협동농장 등 현지지도

■ 7.8(일)

- 김정일위원장, 담배연합회사 등 평양시 인민소비품공장들 현지지도

■ 7.11(수)

- 김정일위원장, 황북도에서 새로 건설한 범안양어장 · 범안발전소 및 범안협동농장의 문화주택마을 등 현지지도
- 김영남 등, 베트남 · 라오스 · 캄보디아 방문차 평양 출발

■ 7.14(토)

- 김영남의 베트남공식방문(7.11-14) 관련 '북-베트남 공동코뮤니케', 하노이에서 발표

■ 7.17(화)

- 김일성의 90돌 생일을 맞이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및 시위」, 진행(김일성광장)
- 김영남의 라오스공식방문(7.14-17)관련 '북-라오스 공동 코뮤니케', 비엔티안에서 발표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 「2001-2003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 7.19(목)

- 평남 · 함남 · 양강도 · 개성시 등, 김일성의 90돌 생일을 맞이하기 위한 군중대회 개최(7.18-19)

■ 7.20(금)

- 평북·황북·자강·강원도 등, 김일성의 90돌 생일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군중대회 진행
- 김영남의 캄보디아 공식방문(2001.7.17-20) 관련 9개항의 ‘북한-캄보디아 공동코뮤니케’ 발표

■ 7.22(일)

- 내각·당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평양시 인민소비품공장 참관

■ 7.24(화)

- 철도성대표단(철도상 김용삼), 러시아방문차 평양 출발

■ 7.26(목)

- 김정일위원장의 러시아연방 방문 관련 보도(중방)

■ 8.1(수)

- 김정일위원장, 음스크시 도착, 탱크·트랙터공장·양돈장 등 방문(7.31-8.1)

■ 8.4(토)

- 김정일위원장, 러 「푸틴」대통령과 8개항의 「조-러모스크바선언」 발표(모스크바 크레믈린궁)

■ 8.7(화)

- 양강도 용암1호 군민발전소 조업

■ 8.11(일)

- 평양승강기공장, 메기사료종합가공설비 첫 제품 제작완성

■ 8.16(목)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성원들과 남측 경제인들의 상봉(인민문화궁전)

■ 8.18(토)

- 당 중앙위 및 당 군사위·국방위원회, 김정일 방러 귀환관련 공동보도 발표

■ 8.19(일)

- 김정일위원장, 함북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 8.21(화)

- 경제학회 제2차회의 진행(원산)

■ 8.23(목)

- ‘청년절’ 즈음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막(3대혁명전시관)

■ 8.25(토)

- 「라선국제통신센터」 조업
- 내각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조·러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대책 등이 토의되었다”고 보도(8.24, 민주조선)

■ 8.28(화)

- 김정일위원장, 갈마휴양소 방문

■ 8.31(금)

- 북한상품전람회 개막(중국 베이징)

■ 9.3(월)

- 강원도 원산만제염소 2계단 확장공사(200정보) 완공 보도(평방)
- 중국 강택민국가주석, 평양 도착

■ 9.4(화)

- 러시아 교통성기술실무대표단(교통성 대외관계국장 바체슬라브 발라긴), 평양 도착

■ 9.5(수)

- 김정일위원장, 강택민과 함께 평양근교의 타조목장 참관
- 김정일위원장, 새로 건설된 '9.27 닭공장'을 현지지도

■ 9.8(토)

- 「평양-유럽아시아합영회사 남새화초온실」 착공
- 국가규격화일꾼대표단(위원장 김형철), 「국제규격화기구」 제24차 총회(호주 시드니) 참가차 평양 출발

■ 9.11(화)

- 김정일위원장, 제757 군부대 염소·토끼목장 등 시찰
- 자강도 희천시 부흥잠업전문협동농장, 현대적인 설비 갖춘 어린 누에잠실 건설

■ 9.12(수)

- 국토환경보호성과 도시경영성 등,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개시(중방)

■ 9.15(토)

- 김정일위원장, 함경남도 철도공장·발전소 등 현지지도(9.14-15)

■ 9.16(일)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일 회의 진행(서울)

■ 9.19(수)

- 김정일위원장,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지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7.6철도공장 외륜직장 15톤공기마치'에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

■ 9.20(목)

- 체신대표단(체신상 이금범), 중국방문차 평양 출발

■ 9.21(금)

- 제12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

■ 9.23(일)

- 김정일위원장, 새로 확장된 제534군부대 메기공장과 황남 과일군 북창농장·풍천과일가공공장 등 현지지도

■ 9.24(월)

- 인도정부 제공 영농물자 전달식(남포항)
-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4차 회의 결정서 채택

■ 9.25(화)

- 「조-중친선양어장」 명명식

■ 10.2(화)

- 독일 국경절 즈음 독일과학기술도서 전시회(인민대학습당)

■ 10.3(수)

- ‘7.6철도공장 외륜직장 15톤공기마치’에 대한 「공화국 영웅칭호」 및 국가표창 수여식
- 황해남도, 2단계 토지정리사업 시작 보도(중앙통신)

■ 10.7(일)

- 함남 남대천(※덕성군→북청군→동해)에 12개의 계단식발전소를 건설중임을 보도(중방)

■ 10.8(월)

- 제12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9.21~10.8) 폐막
- 황북도 홀동광산 칠성대 1호발전소·옥란발전소 및 옥란분광산

등 건설조업

■ 10.9(화)

- 평북도 '12.5청년광산'에 대형 컨베이어 및 조광사 건설 준공

■ 10.10(수)

- 황남도 신원군 계남지구 염소목장 착공

■ 10.13(토)

-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 「아카시아나무 연구실」 신설

■ 10.15(월)

- 원산지역에서 해일과 폭우(10.9-10)로 인해 수백명 사상 보도(중통)
- 베트남경제대표단, 평양 도착

■ 10.16(화)

- 호주정부가 WFP를 통해 500만 호주달러분의 밀을 보내왔다고 보도(중방)

■ 10.18(목)

- '용성닭공장' 등 평양시내 5개 닭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보도(중방)
- 황북 수안군 청년발전소·청년염소목장·살림집·휴양소 등 준공
- 북-베트남 경제 및 경제과학기술협조위 제4차 회의 합의서 조인(평양)

■ 10.20(토)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제2단계 건설 착공

■ 10.22(월)

-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 개막(인민대학습당)

■ 10.26(금)

- 평남 회창군 회창발전소 조업

■ 10.30(화)

- 철도운수부문 열성자회의 개최
- 「전국과수부문 기술경험발표회」 개최

■ 10.31(수)

- 입석리-삼청광산간 철길공사 완공 · 개통

■ 11.1(목)

- 제4차「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11.4(일)

- 김정일위원장, 함북 무산광산聯 현지지도

■ 11.6(화)

- 평북 피현군 삼교천청년발전소 1단계공사 완공

■ 11.10(토)

- 김정일위원장, 「112호담공장」 현지지도

■ 11.12(월)

- 평남 북창군 군소재지-북창노동자구간(4.7km) 도로포장 완공
- 삼지연 · 이명수 · 포대 · 무봉지구에 살림집 2,100세대 건설

■ 11.16(금)

- 황남 봉천군 현대적 메기공장 건설 완공

■ 11.20(화)

-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11.22(목)**

- 노동신문 사설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부흥의 북소리 높이 울리자」 게재

■ **11.26(월)**

- 전국 공장·기업소 후방일꾼회의 개최

■ **11.29(목)**

- 「전국전자자동화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11.30(금)**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12.1(토)**

- 복합미생물비료 및 고려약비료 생산·이용에 관한 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경험발표회 개최

■ **12.4(화)**

- 대흥단군 감자종자처리장(연건평 300여㎡) 건설 완공
- 전국 농근맹원, 집짐승기르기 경험발표회 개최

■ **12.7(금)**

- 함남 정평군 근로자들, 금진강 언제막이 공사 완공

■ **12.11(화)**

- 자강도 고풍1·2호발전소 조업

■ **12.15(토)**

- 「대안의 사업체계」 창조 40돌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12.16(일)**

- 김정일위원장, 평북도 북창기계聯, 수풍발전소 등 현지도

■ **12.18(화)**

- 김일성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창조 40돌 중앙보고회 진행  
(평남 속천군)

■ **12.24(월)**

- 김정일위원장, 자강도 8호 제강소 · 홍주청년발전소 · 강계포도술  
공장 · 강계편직공장 · 강계닭공장 · 강계고려약공장 등 현지도

■ **12.25(화)**

- 강원도 법동군 여해 2호발전소 완공